

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

13주. 풍류와 문학

3차시. 누정에서 천지를 올려보고 굽어보다-송순

학습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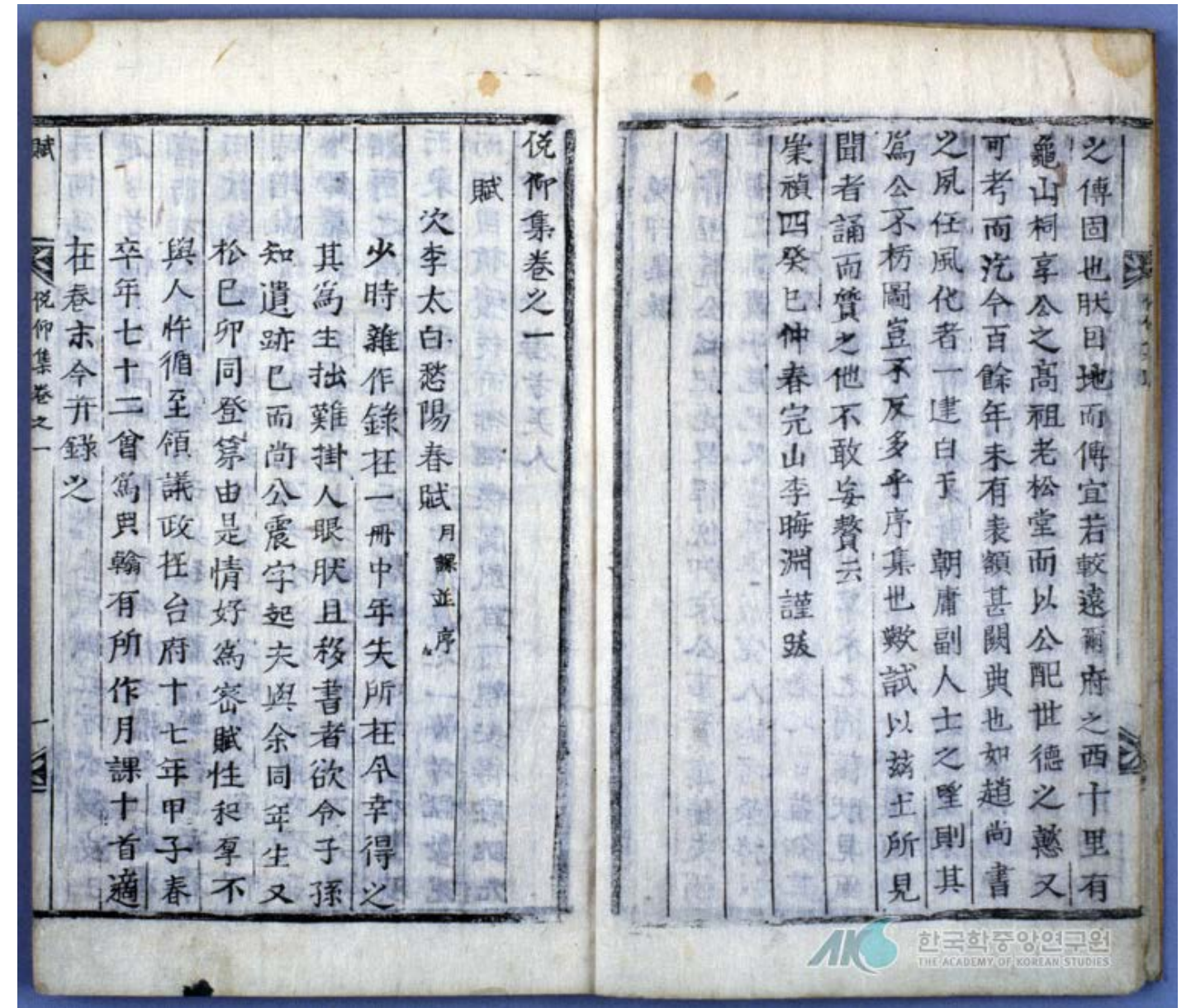
1. 송순의 생애와 문학 성향을 이해한다.
2. 면앙정가의 의미를 이해한다.

송순은 누구인가?

누정에 미치다

호는 면앙정

- 1493년 담양 기곡면 출생.
- 아버지 송태. 어머니 조시옹 딸.
- 박상, 박우 송세림 사사.
- 1519년(27세) 문과 급제, 사가독서
- 1533년(41세) 김안로 득세. 담양으로 귀향
- 면앙정 건립 시작.
- 1542년(50세) 전라도 관찰사. 소쇄원 건립.
- 1553년(61세) 면앙정 중건.
- 1560년(68세) 귀향.
- 1562년(70세) 기로소에 들어감.
- 1582년(90세) 생애 마감.



면앙집 조선 중기의 문신 송순의 문집.
1829년(순조 29)에 송득칠 등이 편찬하였다. 규장각도서.
출처 © 한국학중앙연구원

면앙정의 사계절



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6JC3P9ZBPUY>

이미지를 클릭하여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
모바일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학습목차에서 영상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.

면
앙
집

국문
시가

- 면앙정가 9수
- 오륜가
- 면앙정가(가사)20여 수

한시

- 면앙정삼언가
- 면앙정 제영
- 505수

면앙정 삼언가

굽어보면 땅이요, 우러러보면 하늘이라
그 가운데 정자를 짓고 흥취가 호연하다.
바람과 달을, 산천을 끌어 들여
청려장 지팡이 짚고 백년을 보내네.

俛有地 仰有天 亭其中 興浩然
招風月 揖山川 扶藜杖 送百年

면앙정 단가 7수

제1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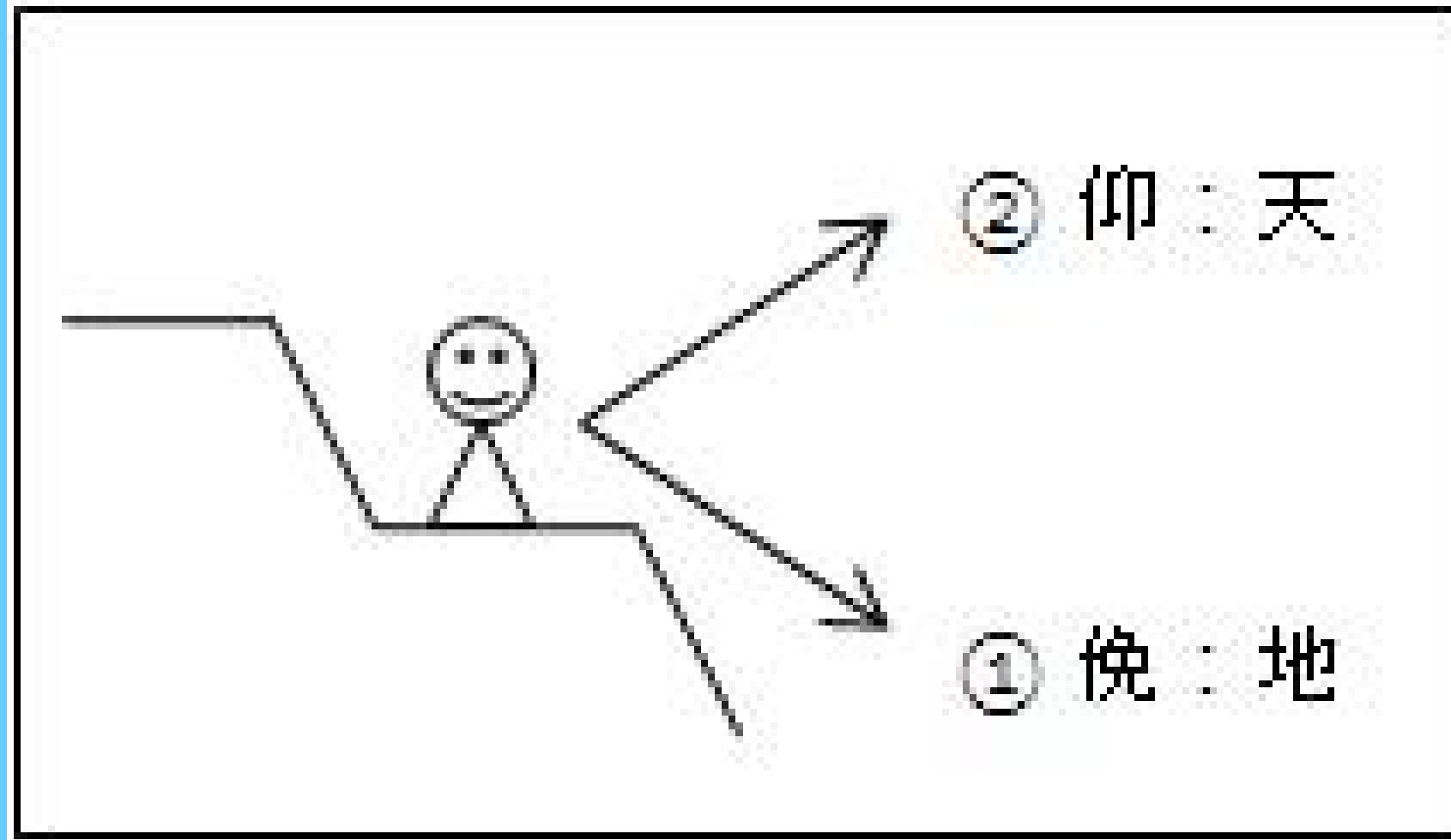
‘면앙’ 뜻 풀이. 아래로 땅 위로, 하늘 사이
에 살며, 풍월과 함께 늙어가리라고 함

2-6수

면앙정에서 바라보는 경치
들판, 대나무, 소나무, 석양

7수

늙음을 잊고 살기로 결심



면앙정과 두 개의 시선



면앙정단가.조선 중기에 송순(宋純)이 지은 시조
© 한국학중앙연구원 | 한국학중앙연구원

면앙정가 -가사

- 가사:서정 가사, 양반가사, 은일가사,강호가사
- 장소 : 면앙정, 담양 제월봉
- 형식 : 3(4)·4조, 4음보
- 구성 : 147구
- 1579년 87세 때 회방연 함.
-과거급제60주년
- 전남 시도 기념물 6호.
- 1798년 정조가 회방연 기념하여
'荷輿俛仰亭'시제로 도과(道科)



송순 회방연에 정철 등 제자들이 가마를 들다(그림 이무성 한국화가)

[http://cafe.daum.net/sansamtkdgh/4uvj/40697?
q=%ED%9A%8C%EB%B0%A9%EC%97%B0](http://cafe.daum.net/sansamtkdgh/4uvj/40697?q=%ED%9A%8C%EB%B0%A9%EC%97%B0)

<면앙정가>

면앙정 위치, 형상

주변의 근경,원경

각 계절 경관,하는 일

면앙정의 즐거움,감군은

봄

흰구름, 안개,
아지랑이.
하늘을 맘껏 다님

여름

녹음 속 피꼬리 울음.
여름날 낮잠.
솔길 왕래

가을

비단 같은 단풍 경관.
들판의 황금 물결
어적

겨울

초목이 진 강산.
빙설로 꾸며진 경관

무등산 한 활기 뒤희 동다히로 버더 이셔.....인간을 떠나와도 겨를 없다.
이태백의 호탕 정회 이에서 더할소냐. 이것도 역군은이샀다.

QUIZ로 정리하기

1 无等山(무등산) 한 활기 뵈히 동다히로 버더 이서, 멀리 떼쳐와 霽月峯(제월봉)이 되여거날 無邊大野(무변 대야)의 모습 짐작 하노라.

3 즈 서리 빠딘 후의 산 빗치 錦繡(금수)로다. 黃雲(황운)은 또 엇디 萬頃(만경)의 퍼겨 디오

5 人間(인간)알 떠나와도 내 몸이 거를 업다.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허려 하고 달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좁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(시비)란 뉘 다드며 딛 곳츠란 뉘 쓸려뇨

2 닐곱 구배 함대 움쳐 므득므득 버릇난 닻. 가운대 구배난 굵기 든 늘근 농이 선잠을 갓 깨야 머리랄 언쳐시니 너라바회 우해 松竹(송죽)을 헤혀고亭子(정자)랄 언쳐시니 구름 탄 靑鶴(청학)이 千里(천 리)를 가리라 두 나래 버릇난 닻.

4 草木(초목) 다 진 후의 江山(강산)이 매몰커날 造物(조물)리 헌 사하야 氷雪(빙설)로 꾸며내니 瓊宮瑤臺(경궁요대)와 玉海銀山(옥해은산)이 眼低(안저)의 버러세라

6 天地(천지)도 넓고넓고 日月(일월)도 한가하다. 羲皇(희황) 모랄러니 이적이야 그로고야 神仙(신선)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그로고야. 江山風月(강산 풍월) 거날리고 내 百年(백 년)을 다 누리면 岳陽樓(악양루) 상의 李太白(이태백)이 사라오다. 浩蕩(호탕) 情懷(정회)야 이에서 더할소냐.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(역군은)이샀다.

1. 위 글 중 면앙정 위치를 보여주는 글은 어느 것인가?
2. 3, 4는 면앙정의 네 계절 중 어떤 계절을 묘사한 것인가?
3. 면앙정에서 누리는 안락과 유쾌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?
4. 작가는 자신의 호탕함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가?
5.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?
 - ① 이 작품의 작가는 면앙정에서 회방연을 하였다.
 - ② 면앙이란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본다는 뜻이다.
 - ③ 면앙정의 네 계절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.
 - ④ 이 작품은 상춘곡의 창작에 영향을 끼쳤다